

서울 교통 빅데이터로 통행량 서비스 등 활용성 높인다

교통 데이터 수집·활용 극대화
40개 시스템 데이터, 포털 제공
오픈 API로 일반에 공개 예정



서울시가 '서울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산업분야 수요가 높은 교통분야 데이터를 수집, 융·복합을 통한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교통 데이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관리체계 '서울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통합이동서비스 같은 첨단 교통서비스 출현으로 다양한 신규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데이터 분석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데이터를 융·복합할 때 산재된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실제

활용이 제한돼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빅데이터 통합저장소와의 연계를 통한 교통데이터 수집·활용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는 복지·시설 등 서울시가 보유한 518종 시스템의 행정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수집한 도시데이터를 저장해 분석·처리하는 반면, 서울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은 교통 관련 데이

터만 취급한다.

시는 "당초 빅데이터 통합저장소에서 모은 교통 및 관련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자료를 수집하고자 했으나 저장소 기능 제약(저용량 등)과 데이터셋 부족으로 교통시스템 데이터를 수동 또는 직접 연계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2019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올해 토대를 마련했다. 교통데이터 수집·제공을 위한 하드

웨어(30식), 소프트웨어(23식) 기반을 구축하고, 서울시 내·외부 35개 교통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했다.

시 내부 교통데이터 시스템 25개에는 버스 운행정보, 도착정보, 혼잡도, 지하철 운행정보, 교통신호정보,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 등록 정보, 교통안전시설(도로·횡단보도·표지판 위치) 정보, 도로점용(가판·공사) 정보 등이 담겼다.

외부 교통데이터 시스템은 8개로 티머니 교통카드, 택시 정보, 도시고속도로 소통·돌발 정보, 교통량 정보, 공공자전거 시설 및 운영현황, 서울 외곽 도로 속도, 기상 정보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 티맵과 카카오모빌리티 2개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의 교통데이터도 연계·수집됐다.

시는 내년 외부기관의 교통데이터 시스템 5개(한국스마트카드의 통합이

동서비스·택시정보·애플리케이션 정보, 서울시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정보, 국토교통부의 도로표지안내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총 40개(기존 35개+추가 5개) 시스템의 데이터를 교통공유포털을 통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실시간신호 및 돌발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해 내비게이션 업체(티맵, 카카오)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픈 API로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데이터를 토대로 한 행정서비스 기능도 강화한다. 도로별 혼잡도, 통행량, 경로정보 같은 교통데이터의 지도 서비스를 추진하고, 교통데이터의 3차원 시각화를 통해 디지털트윈 기반 서울시 교통정보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체납자 992명 카드발급·대출 막힌다

서울시, 韓신용정보원에 정보 제공
체납 건수 1만1612건, 체납액 432억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992명의 개인 신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한해 3건 이상 500만원 넘게 체납한 경우라고 시는 설명했다.

체납 건수는 총 1만1612건, 체납액은

432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 카드 발급·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 정보가 남아 있는 동안은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된 경우 제재를 피해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와 자치구의 체납세금이 합산돼 신용정보 제공 등록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들은 신용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이뤄진다. 시는 지난 10월 등록 대상자 1113명에게 신용정보제공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12억2000만원이 자진 납부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서울디자인재단 안전돌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어린이집 리모델링시 고려할 원칙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시 안전돌봄 어린이집 맞춤형 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어린이집 리모델링, 신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할 때 고려해야 할 4가지 주요 원칙(▲아동의 성장 고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감성적 느낌 제공 ▲교사의 효율적 보육 도모)을 담고 있다.

예컨대, 모든 출입문에는 아동 눈높이부터 성인 눈높이까지 확인이 가능한 조망창을 설치하고,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스티커를 부착한다. 조명은 전구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덮개를 씌워 사용한다.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하고, 영유아의 신체 치수, 용변훈련 등을 위한 교육목



S-돌봄 디자인 어린이 전시장. /서울디자인재단

적을 고려해 조성한다.

재단은 이번에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새로 건립된 4개 구립어린이집(금천구구립독산롯데캐슬어린이집, 마포구구립해들어린이집, 마포구구립산들어린이집, 중랑구구립강릉트리움어린이집)에 적용했다. 재단은 학부모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1점을 기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유흥가 주변 '불법촬영 근절' 점검

점검 장비 신청시 대여 가능

서울시는 유흥가 주변 민간개방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250명이 이달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주간 관내 유흥가 일대 민간개방화장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들은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불법촬영 장비 설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자체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 건물 소유주, 관리자들을 위해 자치구가 보유한 점검 장비 약 860대도 빌려줄 계획이다. 점검 장비는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대여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강서구 시민감시단 점검 모습. /서울시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시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2018년 2135건, 2019년 2033건, 2020년 1490건에 이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요소수 불법유통업체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이달 8~19일 요소수 중간유통사와 주유소 454곳을 대상으로 긴급 단속을 실시해 정부 기준보다 많은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곳과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2020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한 양인 1500리터를, B주유소의 경우 450%를 초과한 1300리터를 보관하다가 이번 단속에서 걸렸다고 시 민사단은 전했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판매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하는 양을 보관할 수 없게 돼 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24일(수)
음력 : 10월 20일

수도권 날씨
-2 ~ 7°C

운동 지수: [진행률 막대]
빨래 지수: [진행률 막대]
세차 지수: [진행률 막대]
외출 지수: [진행률 막대]

지역별 날씨: 연천 -5/6, 동두천 -5/7, 가평 -5/6, 파주 -6/7, 서울 -2/7, 양평 -3/7, 수원 0/7, 용인 0/7, 평택 -3/8, 인천 0/8, 백령도 6/9

해돋이 / 07:21 | 해질 / 17:1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코스타리카의 한국사상선...“중미의 한국되고 싶어”
▲美·대만 경제대화 개최 당일 美구축함 대만해협 통과 /사진 뉴시스

▲인류 멸종 막을 행성방어 실험 우주선 오늘 낮 발사
▲일본 엔화 가치, 4년여만의 최저행진 이어가...달러당 115엔 돌파



▲‘난민 수용’ 놓고 EU-벨라루스 대립...“합의한 적 없다”
▲그리스도 ‘핀셋 봉쇄’ 시작...체코·슬로바키아도 미집중자 규제 /사진 뉴시스